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27.(토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 과장 윤종수, 서기관 박희민 (Tel. 044-200-2236)
<b>엠바고</b>	<b>2.27(토) 11시30분 (행사종료) 이후</b>		
※ 관계부처 :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김승범 사무관(Tel. 044-201-4514)			

## 총 113만가구에 “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”

- 황 총리, 행복주택 방문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점검
- “시장 상황 잘 모니터링, 봄 이사철 전세 불안 커지지 않게 관리할 것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\*을 방문하여,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시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

\* 행복주택은 도심내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저렴한(시세의 60~80%) 공공임대주택으로, 송파삼전지구 등 서울 4곳(총 847세대)에서 지난해 10월 첫 입주를 시작함

○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·대학생·사회초년생 등 입주민 4명을 만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, 신혼부부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공간을 직접 살펴보았다.

\* (참석) 김경환 국토부 1차관, 조경규 국무2차장, 황종철 토지주택공사 부사장, 입주민 4명(대학생 1, 사회초년생 1, 신혼부부 2) 등

□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1.5만호를 공급(준공)\*하는 한편, 주거급여(81만가구), 주택자금 금융지원(20.5만호) 등 총 11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### <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준공 실적·목표 >

구분	'13	'14	'15	'16	'17	합계
준공물량	8만	10.2만	12만	11.5만	11만	52.7만

\* 참여정부 39.4만호, MB정부 45.5만호

○ 특히, 금년에 고령층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(11곳, 900호)을 공급하고, 고령자 전세임대주택(2천호) 등을 신규로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○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, 지난해 10월 첫 입주(847세대)를 시작한 이후, 금년에는 전국 23곳에서 총 1만호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,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총 15곳 조성하는 등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.

\* (신혼부부 특화단지) 어린이집·키즈카페 등 설치, 투룸형 평면 확대 공급  
(대학생 특화단지) 빌트인 가전·가구 및 도서관 등 설치

□ 황 총리는 “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등 서민들에게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,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금년에 계획한 총 11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황 총리는 “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,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○ 아울러, “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봄 이사철에 전월세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